

사회 문화적 이슈들의 허와 실

The Truth and Falsehood of Social and Cultural Issues

김봉렬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by Kim Bong-Ryol

97년의 문화계 전반에서 건축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급상승한 부문도 드물다. 대학입시에서는 최상급의 인기학과로 건축과가 부각됐으며, 건축계 인사들이 펴낸 대중적 출판물들이 연일 신문의 광고란을 달구더니 급기야 일반도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건축컬럼을 경쟁적으로 게재하고, 건축전문지들은 올해만도 3종이 더 창간되어 14여종에 이르는 최다 전문지를 가진 분야가 됐다. 그렇다고 기존 전문잡지들이 죽을 썩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판매부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아마도 건축계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부수의 잡지들이 매월 인쇄소를 나서고 있을 것이다.

언론의 관심은 TV 드라마 작가들이 첨병 역할을 했다. 그전에도 간간히 건축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종종 있었지만, 금년의 TV계는 연속극 단막극 할 것 없이 가장 선망받는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건축가만의 등장은 진부했는지,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물론 아직은 생소한 조경환경 디자이너까지 등장시켜, 한국 건축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건축 디자인계와 가장 가까운 동네인 미술계에서도 드디어 어수룩한 이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제2회 광주 비엔날레에는 5개 주요테마 중 하나를 공간-건축에 할애했다. 올해초 개원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건축과도 당당히 미술원의 한 일원으로 창설됐다.

미술계와 건축계가 가장 열렬히 맞닥뜨린 장면은 한편의 사회 코메디였다. 이른바 '환경조형물' 설치를 두고 건축계의 부정적 시각을 미술계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고, 결국 아직은 사회적 파위가 센 미술계의 판정승으로 유보 상태다.

건축계 내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았다. 건축과의 인기에 힘입어 10개 대학에 육박하는 건축관련학과들이

신설됐고, 기존대학의 신규채용과 함께 50여명에 가까운 신입 교수들이 채용되어 교수 지망자들은 유래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무엇보다 비제도권 학교인 서울건축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하여 첫 입학생을 받아 건축교육계의 새장을 열었다. 또한 건축계 최초의 웹진 Archforum이 인터넷에 올라 건축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고조됐다.

자발적인 건축전시회도 활발하여 현실과 비평전, SA 작가전, 북한강 이야기전 등이 인상적이었다.

비제도권의 활발한 활동에 비한다면, 제도권의 건축 3단체 활동은 그다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공동화된 대한건축학회에 반발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가칭)한국건축학회를 결성하려던 움직임이 미수에 그친 일, 건설회사의 설계참여 기도에 맞서 건축사협회의 저지 노력이 일단 효과성을 거둔 일 정도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뜨거운 관심과 활발한 움직임들의 다른 면을 들여다 보면, 우려할만한 역기능이 산적해 있다. 대학입시에서 건축관련학과들이 전통의 의외과마저 물리치고 자연계 최고의 학과로 떠오른 인기는 건축계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기초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천재적 두뇌들이 인재들이 할 수 있는 건축을 전공하는 건축에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교수진의 수와 실력, 낙후된 설비와 좁은 교육공간 등 교육인프라는 답보상태인 반면, 부전공 복수전공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우수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부실교육의 운상이라는 비난만 면해도 다행일 지경이다.

한두권의 건축서적들이 서점가의 화제가 되자, 너나 없이 베스트셀러의 꿈을 꾸는 필자들은 상업적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제목 자체부터 '건축'이라는 이름을 빼 버리고 어느 분야의 서적인지 모호하게 하는 출판사의 기획에 따르다보니, 깊이있는 전문서적들의 출판은 의욕마저 사라져 버렸다. 대중적인 책은 쏟아지지만 정작 건축인을 위한 학술서적, 전문서적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올해의 학술서적 가운데는 김동욱 교수의 '한국건축의 역사' 정도가 꼽힐 뿐이다. 지식의 저널리화, 학문의 상업화 현상이 건축계에도 찾아든 것일까.

TV드라마와 언론이 심어주는 왜곡된 건축가상은 이제 비판거리도 못된다. 잘생기고 젊고 돈 많고 시간 많은 건축가들이 대낮 강변의 우아한 카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 - 그

것도 3각 내지 4각관계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들은 단지 가상의 현실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신참 건축사들이 실제 향유하는 낭만이며 꿈꾸는 이상이라는 것이다. 왜곡된 건축가상은 결국 건축행위 자체를 가볍게 만들고 속물화시킨다. 건축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회화화시키면서, 수많은 아키텍처 키드를 양산해내고 있다.

한국만큼 미술계와 건축계가 단절된 사회도 드물다. 서로 상대계에서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현대예술과 문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류는 커녕, 관심조차 없다. 기껏 환경조형물 문제를 놓고 서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예총 회의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의 현대 건축이 새로운 비전을 찾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대미술과 예술의 움직임에 무관심한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올 11월 전까지만 해도 건축계의 인력수급은 심각한 공급과소 현상을 빚었다. 쓸만한 경력사원 하나 구하기가 천연기념물 찾기보다 어려웠으니, 그 많은 건축과 졸업생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하소연이 생길만 했다. 그들의 높은 이상을 현실이 수용해 주지 못하니, 일부는 건축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시촌으로 잠적했고, 일부는 장기 해외연수나 유학을 떠났으며, 일부는 독립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일을 꾸리고 있었다. 너무 우수한 인력들이 건축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량의 신입교수 자리가 생기니, 지방대학의 채용공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초유의 교수미달 사태까지 빚어졌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디에 있느냐"를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이 시대 건축지성인들의 가치관이 됐다.

그러나,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이 모든 열기와 움직임과 시도들은 언말 찾아온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는 한낱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시중의 예상대로라면, 3년 안에 설계사무소의 2/3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이다. 벌써 대부분의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에서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인원감축이나, 임금삭감이나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98년도 대학졸업생들은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평균 취업예정율 20%를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열풍같이 불었던 세계화 국제화의 기치아래 너도나도 한두번씩은 다녀왔던 해외여행이 이제는 머나먼 소망이 되고 말았다. 이미 예약됐던 단체해외답사가 모두 취소되고, 건축계의 세계화 바람을 주도했던 대량유학의 가능성도 봉쇄됐다. 시장개방과 건축문화의 예측화 폐해를 우려했던 지난 이슈

들은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었다. 이제는 건축계 자체의 생존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가.

그렇지 않다. 건축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다. 인류의 출현과 동시에 건축은 나타났고, 자본주의적 기업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외환시장과 IMF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건축은 있어왔다.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건축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시장도, 건축가도, 건축교육도, 설계사무소도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건축계의 어려움은 거품인가가 제거되어 정상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책이 팔리지 않으니 지성들은 더 깊이있는 사색과 저술이 가능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상에 못미치는 현실 때문에 한때 현장을 떠났던 우수인력들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기 어려워 다시 건축현장에 복귀할 것이다. 떠나기 전보다 훨씬 진지하고 치열한 자세를 가지고, 해체위협에 직면한 재벌들은 자체 공사마저 거둬들이는 판이니, 대기업의 설계업 진출은 하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시장이 별볼일 없으니 외국의 유명 건축조직이 국내에 들어와 싸설이할 우려도 없어진다.

일단의 건축인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적 고통과 화려한 동경을 조금만 견뎌내고, 자신의 내부로 침잠하여 더 깊은 사색과 근본적인 노력을 딱 1년만 한다면, 1999년의 건축계는 훨씬 밝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노력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 있다. 건축계의 명목적인 지도단체들, 3단체들이 이제야말로 실질적인 지도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회원의 권익보호나 회장단의 권위만으로 자족하는 소극적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이 난국에 건축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우리의 건축이 나아갈 바에 대한 비전을 던져주는 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상은 대통령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건축계의 지도자는 과연 있을까?